

세계 최고... 우리문화 유산들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문화유산 12가지'

최준식 외

시공사 / 1만 4천원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즉 유네스코가 전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산을 지정,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 분야에 걸쳐 모두 열두 가지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우선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특성을 모두 가진 '복합유산'으로 분류되며 유적이거나 자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유산은 경주역사지구, 종묘, 창경궁, 수원 화성, 해인사 장경판전,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석굴암과 불국사이다.

세계 기록유산은 유네스코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고문서 등 귀중한 기록물을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기록유산은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백운화상초록 불조지심체요집>, <훈민정음>이다.

세계 무형유산의 정식 명칭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결집이며,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장경판전'.

전문가가 말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 고지도, 고문서, 의궤 등 풍성한 자료로 이해도와

라는 중요제약이 등재되어 있다.

앞에서 나열한 유산들은 가히 세계 최고의 것들이다. 이 열두 가지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화를 소중히 여겼던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만나는 지적 여행을 떠나보자.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 문화유산 12가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60여 인구가 보호를 자청한 열두 가지 우리 문화유산을 최초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이제까지 사진과 풍경을 나열, 소개하는 데 그쳤던 기존의 문화유산 소개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유산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고지도와 고문서, 의궤 등 풍성한 그림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한국학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 온 최준식교수(이화여대 한국학과)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꼬집고, 그 무지 때문에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열두 명의 한국학 관련자들이 모여 이 책을 만들었다. 더군다나 집필 전에 대규모 학술회의까지 열어 서로의 주장과 논리를 검증했다니 믿음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은자 기자 eisen@buddhapia.com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

이성미 지음

대원사 / 1만 8천원



◁'독서하는 여인' 서울대박물관 소장.

옛 여인 삶, 작품·유물 통해 고찰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는 여인들의 삶과 그들의 예술, 문학, 학문적 세계를 그들이 남긴 작품이나 유물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살핀 책이다.

신라시대에는 세 여왕이 있었고, 고려시대 말까지만 해도 상류층에서 여인들이 재가(再嫁)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도덕적 관념이 여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억압된 사회분위에서 살아야 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신

이 책은 제한적이고 비교적 좁은 환경에서도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온 옛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여인들의 지위 변화와 활약을 살핀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사임당이나 황진이 외에 허난설헌, 병허각 이씨, 임윤지당, 죽향 등과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뛰어난 솜씨를 보이는 수예품을 통해 여인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조선시대 여인들의 지위변화·활약상 살펴

사임당과 황진이 정도다.

특히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혼자서는 아무런 공적,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었다. <경국대전>의 '이전(吏典)'에는 조선의 궁중과 조정에서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의 부인들에게 부여하는 호칭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또 '형전(刑典)'에는 사족(士族)의 부녀들이 산간이나 물가에서 노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100대의 발을 밟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책은 저자인 이성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지난 5월 출간한 <Fragrance, Elegance and Virtue: Korean women in Traditional Arts and Humanities>를 우리말로 재편집한 것이다. 국내 독자들을 위해 역사적 근거나 생활상, 그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충분히 보충했다. 이 교수는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진 많은 여인들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印尼 등 희귀동물 서식지 탐사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생태·환경 관련 도서의 수는 이제 4백 여 권에 이른다. 하지만 이 책들을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직은 이런 책을 찾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멸종 생물에 관한 책들의 운명은 책이 다루고 있는 멸종 생물의 그것과 비슷하다. 에드워드 윌슨의 <생명의 다양성>(까치), 데이비드 폼엔의 <도도의 노래>(푸른숲), 그리고 일본 NHK 위성방송 '생물의 목시록' 제작팀이 엮은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들>(도요새)은 절판 또는 품절 상태에 있거나 재고가 별로 없는 탓에 어렵사리 구할 수 있다.

최근 출간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독특한 보고서인 <마지막 기회> 더글러스 애덤스의 멸종 위기 생물 탐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조심스럽게 이 책이 앞선 책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전망을 해 본다. 이런 낙관적인 예측에는 다분히 그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대를 거는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없지 않다.

우선, 이 책은 아주 재미있다. 이는 무엇보다 영국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재능 덕분이다. 애덤스의 글법은 예의 여행기의 형식에서 빛을 낸다. 여행의 동반자인 마크 카워다인의 존재는 이 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카워다인은 동물에 대한 사랑과 해박한 지식, 성실성 등을 두루 갖춘 동물학자다.

애덤스와 카워다인, 두 사람의 멸종 위기 탐사는 우연한 만남에서 출발한다. 한 집지사의 부탁으로 마다가스카르산기악원숭이 취재에 동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취재 도중, 카워다인이 북부원숭이소, 마운틴고릴라, 카카포, 양조강돌고래, 코모도왕도마뱀, 로드리게스과일먹이박쥐 같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인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곧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몇몇 동물들"의 이름을 주위사람이 애덤스는 곧바로 등장구를 친다. 두 사람은 세계 각지로 이들을 찾아다니기로 의기투합한다.

이후고, 1985년 만난 두 사람은 1988년과 1989년에 걸친 열 달 동안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마지막 기회> : 더글러스 애덤스의 멸종 위기 생물 탐사)는 멸종 위기에 처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생물들을 찾아 나선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지적 오디세이이다. 동물학자 마크 카워다인의 풍부한 생물학적 지식과 더글러스 애덤스의 인문학적 지식이 유머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아우러져 풍성한 정보와 깨달음을 안겨준다. (해나무 펴, 1만2천원)

'마지막 기회'

더글러스 애덤스의 멸종위기 생물탐사



자이르, 뉴질랜드, 중국, 모리셔스 등지에 있는 희귀 동물의 서식지를 둘러보는데 이 책은 그 여정의 기록이다. 여행기의 형식을 빌렸으며 극적인 구성과 손에 잡힐 듯한 묘사는 흥미진진한 소설 읽힐 정도다. 또한 희귀 동물을 향한 두 사람의 애정이 돋보인다.

첫 탐사지인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에서 탐사 일행은 식사 도중 "동물을 멋대로 의인화해 인간의 감정과 인식을 자기 맘대로 투영하는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리고 그러한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애덤스는 마운틴고릴라를 직접 보자 "의인화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다. "의인화야말로 느낀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단언한다. 이런 시각은 뉴질랜드에서 카카포를 안은 카카포 수색자의 모습을 "성모 자상(聖母像)"이라 묘사하기에 이른다.

탐사 일행에는 방송 관계자도 포함돼 있었다. 탐사 여행이 영국 BBC 라디오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는 영국 사람들은 카메라의 힘을 빌려 자연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이다. 그런데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들>의 머리말에서 생물의 절멸을 가져온 원

인으로 영국 사람이 지목되는 것은 자못 역설적이다. "생물들이 소멸한 최대의 원인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영국인 '복선장' 때문이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이 책에서도 발견된다. 일종의 오지 여행기로도 읽히는 이 책은 사람들에게 대한 묘사에 뛰어나다. 그렇지만 서구인의 잣대로 3세 계를 재단하는 데 폭은 적잖이 거슬린다. 예컨대 자이르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얻은 통찰이 대표적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한 나라에 턱없이 많다면 그 나라는 분명 예전에 식민지였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제국이 없었으면 식민지도 없었다.

그때도 나는 애덤스의 뇌리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자의 무의식을 봐줄 생각이 없다. 희귀 생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아주 맘에 들어서다. "그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좀더 비참해지고 암울해질고 쓸쓸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통념에 비해 한결 낯지 않은가.

최성일 / 출판문화뉴스

소설 뽀철 정도로 흥미로운 구성

서구인 잣대로 제3세계 재단 거슬러

이 책은 사람들에게 대한 묘사에 뛰어나다. 그렇지만 서구인의 잣대로 3세 계를 재단하는 데 폭은 적잖이 거슬린다. 예컨대 자이르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얻은 통찰이 대표적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한 나라에 턱없이 많다면 그 나라는 분명 예전에 식민지였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제국이 없었으면 식민지도 없었다.

입산 출가 후 줄곧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한 남자의 구수하면서도 진솔한 수행이야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 가슴을 저미는 애틋한 사연, 세속을 떠난 여유,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우리 삶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

선방 이야기

토굴土窟이야기

능인 스님 글

국판/230쪽/7,500원

티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수인법문>에 대한 해설!

심오 법문이란 마음 수행의 길에서 항상 수지하면서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수 있는 팔막한 몇 구절의 요악된 법문을 말한다. <대수인법문>은 대승의 교의를 통달하여 중과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심오 법문이다. 이 원문을 자주 독송하고 심오로 삼아 호지한다면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수행심과 신앙심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박건주 역해/국판양장/205쪽/8,000원

원리를 알면 漢字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한자는 대부분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거나 추상적인 지사문자,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나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하여 다른 글자의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이제 나도 한자 전문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쉽게 익히도록 이야기식으로 꾸미고 있는 데, 글자마다 그 글자가 본시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하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말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알상에서 많이 쓰이는 1,800여 한자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신용태 저/신국판/554쪽/17,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원문 설명과 해설 일기 쉬운 한문 해석법

심재동 저/신국판/383쪽/12,000원

은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51 다문빌딩 5층 전화 02)972-7181-5 (술판부) 926-8361